



이야기가 있어 아름다운 '텃빈 충만'

국보와 보물이 있는 옛 절터 이야기 김남용 지음 일지사 | 1만6천원

논밭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제86호)와 갑포 앞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갑은사지 석탑(국보 제112호). 한때는 웅장한 규모와 위용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텅 빈 절터를 지키고 있는 문화재들이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과 법당을 찾은 불자들의 발길은 사라졌지만, 석탑과 부도 등의 문화재는 절터를 지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없이 설하고 있다.

문화재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탓일까? 최근 전국 2-3천여 개에 이르는 폐사지를 보호하기 위한 '폐사지 보존 법안(가칭)'이 국회 상정을 준비 중이고 한 문화 단체는 '폐사지 1지킴이 운동'을 발족시키는 등 폐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보와 보물이 있는 옛 절터 이야기> 역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사지에 대한 헌사(獻詞)다. 지은이는 김남용 교수(신흥대학 소프트웨어 개발과). 불교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김 교수는 어느 날부터가 무성한 잡초 속에 방치된 채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져가던 유물 유적들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보존·관리가 잘 되어 있는 절터가 있는가 하면, 유지보수가 안 되어 흉물스럽게 변하거나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옛 절터는 곧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준 무한의 보고(寶庫)라는 생각이 절터 기행을 시작하고 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책에서는 폐사지 중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가 있는 폐사지 15곳을 소개한다.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41호) 삼층석탑(보물 제545호) 등 다섯 점의 보물을 품고 있는 흥천사 절터지, 유일하게 북쪽을 향해 서 있는 석불입상(보물 제96호)이 있는 충주 미륵리사지 등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폐사지를 사진과 함께 만날 수 있다.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폐사지를 둘러보다 보면 절터에 걸려다니는 돌맹이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숨결을 찾으려는 지은이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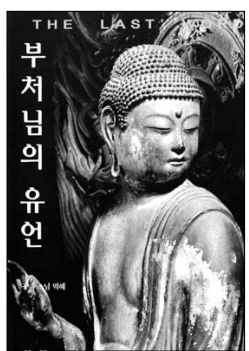
웅장한 법당과 분주한 사람들의 발길은 사라졌지만, 문화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폐사지를 지키고 있다.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북쪽을 향해 서 있는 충주 미륵리사지 석불입상(보물 제96호)에서 바라본 절터.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체선(箕城休峯)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럽러워 조선 예술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苦行)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사서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부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있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엮음 맑은소리 맑은나라 | 1만원

"어떤 등기에서건 어떤 인연에서든 간에 이 한편의 책을 집어 든 순간 당신은 이제 한쪽 길만을 과감히 선택해야 한다. 인생에서 부처의 길이나 아니면 중생의 길이나를 두고 후회 없는 한편의 매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가 되든 중생이 되든 그 결과는 오로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1996년 첫 출판을 보인 이후 10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온 <부처님의 유언> 표지 글이다. 독자들을 향해 서슴없이 협박에 가까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는 바로 부처님 최후의 말씀이 담긴 <불유교경(佛遺教經)>을 우리말로 역제한 공파 스님(부산 아미타도량 원효화당)이다.

책의 표지 글만큼이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뒤를 돌아보고 있는 불상이 담긴 표지다. 글빛이 군데군데 벗겨진 이 불상은 지극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다. 뒷덜이 같은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부모가 그러하듯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시방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우리들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을 부처님의 모습을 대면하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그분의 눈물겨운 자비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책 내용이 주는

느낌과 고스란히 들어 있다. <부처님의 유언>은 1996년 초판 이후 절판됐다 최근 재발간됐다. 지금까지도 책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역자의 자상하면서도 유려한 문체와 솔직담백한 글쓰기로 부처님의 유언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때론 부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현실을 통렬하게 꼬집고 있기도 하다. 30여 년 동안 오로지 경전 연구와 수행의 외길을 걸어온 공파 스님은 오랫동안 <불유교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고백한다.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조금도 허락하지 않고, 그 분이 원하지 않았던 일들만 거스러니 하며 허를 좋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괴심 때문이었다"게 그 이유다.

부처님의 유언을 따라 살아야 하는 수행자들이, 혹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서언부터 결론까지 총 22장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였다. 겨울 마음 음식 수면 인욕 욕심 단속 떠남 정진 정병 선정 지혜 수행의 문 진리 부촉 무상 등에 대하여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파 스님은 <제법집요경> <지세경> <반야경> <대보적경> 등 팔만대장경 속에 보석처럼 숨어 있는 부처님 말씀들을 캐내고 인용하며 그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다.

그동안 <불설무량수경>을 새롭게 번역한 <극락세계 I·II·III>을 비롯해 <원문 천수경> 등을 펴내며 현대적 언어로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몰두해온 공파 스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라는 스님은 "평범한 한 사람이 남긴 유언도 합부로 어기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부처님의 말씀이겠느냐"며 늘 부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은?" "호떡이지"

인도·초기 선종 조사들의 문답 100칙 번역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입니까?" 운문 스님이 대답했다. "호떡이지."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화상께서 남전 스님을 만나보셨다면요?"라고 묻자 조주 스님이 답했다.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지?" 남송들의 질문에 선승들은 일반인들이 전혀 알아듣기 힘든 '동문서답'을 한다. 전혀 엉뚱해 보이는 답을 통해 선지식들은 질문자 스스로 자신의 허점을 보게 하고, 의심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송고백책>은 중국 송대 임제종의 설두중현(980-1052) 선사가 인도와 초기 선종 조사들의 문답 중 100칙(則)을 뽑아 송을 붙인 것이다. 이 <송고백책>에 원오국근(1063-1135) 선사가 각 문답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설명하고 속담식의 짧은 평과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덧붙인 것이 바로 <백암록>이다.

<백암록>의 뼈대를 이루는 <송고백책>을 동국대 역경위원 이인혜씨가 옮겼다. 공안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 원문과 번역문만을 실었으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선문염송학회>와 <백암록강의>를 참고해 각주로 풀이하고 있다.

이제는 "선지식들은 다소 거칠고 과격해 보이는 선문답을 통해 수행자들이 단지 자신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게 만들었다"며 <송고백책>은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찬 책"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 나온 책

■ <Buddhist Sanskrit Literature of Nepal> (상커 타파 지음, 민족사, 1만5천원) =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네팔의 산스크리트 불전에 관한 연구서 <Buddhist Sanskrit Literature of Nepal>가 국내에서 영문(英字)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네팔에서 전해오는 대승불교 경전과 밀교 그리고 진언, 만다라 등에 관한 산스크리트 사본(寫本)을 연구한 과정을 밝힌 책으로, 세계 각국으로 퍼져간 산스크리트 문헌에 대한 연구는 물론 그 문헌에 대한 연구사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네팔의 산스크리트 경전은 13세기, 터키의 침략으로 나라사가 붕괴되자 네팔의 승려들이 네팔로 옮겨온 것이다. 19세기 중반 영국 학자인 브라이언 호드거슨이 이 산스크리트 경전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서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됐다.

이 책은 지은 상커 타파 박사(트리부반 대학 부교수)는 불교사와 불교학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환 교수로 방한해 이번 책을 펴내게 됐다.

■ <현공풍수학> (호경국 지음, 박현영 옮김, 전통문화사, 3만3천원) = 중국 역학 연구의 대가 호경국 교수가 풍수와 길흥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역현공학 신태>를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양택이론의 허와 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공풍수의 원리와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옮긴이는 2005 동국대 사회교육원 가을학기 강사를 통해 현공풍수 알리기에 나선다. (02)2260-3728

■ <쌍둥이의 상추쌈 명상> (오진희 지음, 열림원, 9천5백원) = 싱싱한 상추 위에 밥 한 숟가락 올려놓았다. 맛도 향도 별나지 않지만 모든 찜에 빠지지 않는 상추. '쌍둥이 시리즈'로 유명한 동화작가 오진희씨는 상추쌈을 먹으며 "다른 음식을 부드럽게 감추면서도 원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상추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책에서는 나물 케기, 감자 곁질 굽기, 두부 심부름 등 가난했던 시절 밥상에 얹힌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우리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 나가는 지혜와 희망을 이야기한다.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중국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주려 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간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제원 선사님께서 명인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았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기문명리학강의안내
(사주, 작명, 택일, 단시, 풍수)
www.gimun.net

- 교양강좌: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문의: 02-961-0871~2)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문의: 031-201-3377)
- 개강일시: 2005년 9월부터 개강
 - 매주 수요일(서울): 기초반(오후 7시 - 9시) - 조식범, 원리론
 - 매주 수요일(수원): 기초반(오전 10시 - 12시) - 조식범, 원리론
 - 매주 목요일(서울): 고급반(오후 7시 - 9시) - 인사명리해단, 기문택일
 - 매주 화요일(수원): 고급반(오전 10시 - 12시) - 인사명리해단, 기문단시
 - 매주 화요일(수원): 생활풍수(오후 1시 - 3시) - 주택의 길흉 및 길흉총론 분석
- 원서접수: 200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 (경희대학교직접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가능)
- 제출서류: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사진2장

○ 담당 교수: 손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민강 손혜림 기문명리원대표 (02-3476-3433)

기문명리학이란? 일반적인 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경제적인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입니다. 본 강의는 단군시대부터 전해오는 정통의 특수비법을 현재의 전파자이론에 근거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수해드립니다. 카운셀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사업 운영이나 명리상담원을 하는 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을 지니신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학문입니다.

손혜림원장 특별 개인지도 60회 완성
서울강남고속터미널건너편 뉴코아역 반포쇼핑 7동 407호 02)3476-3433

통증·근육통 완화
"관절·허리통증·어깨결림 각종통증"

적외선조사기(통증 완화) 탄생

1. 먹고 2. 바르고 3. 찜질하고
123시스템으로 통증에서 해방

적외선조사기 통증, 근육통 완화

1·2·3시스템으로 해결하세요

공통개발 (주)임신코리아 (주)고려생약

대리점모집 문의전화 080-521-6666

제50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엄청난 청건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철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여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योग입니다.

- ◆ 날 짜: 8월 27일(토) 저녁 9시 ~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 준비물: 동참비 2만원 기도포(코수건), 수건 2개(담뽀용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 ▶ 당일 지체 공양을 준비 하지 않습니다.
- ◆ 장소: 분당 이매역 하안마을선원 대법당
-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보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민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진 서울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마스크가우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접음), http://cafe.daum.net/sorisan

간(肝)이 간 지방간 관 광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통증 응담과 비알민한 자연산 참다슬기 삶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과 구슬담다슬기를 죽은 것과 진 것들을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담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를 향이리에 넣고 향기 97마리를 달인 뒤 향기에 물을 붓고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 데 향겨가 다 터들어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미를 토중 (민승원)